

한국 근대소설과 연애담론

- 1920년대 『동아일보』 연재소설을 중심으로*

최미진** · 임주탁***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연애의 신성과 타락한 연애의 지표들 - 《泣血鳥》의 경우 |
| II. 『동아일보』와 여성 담론 | V. 연애의 지식모델과 자유연애론의 진단들 -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의 경우 |
| III. 근대적 연애 모델과 연애의 환상성 - 《幻戲》의 경우 | VI. 마무리 |

I. 머리말

한국 근대소설사 연구에서 연애가 본격적인 화두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소설이 인간의 삶을 둘러싼 제반 문제들을 재현하는 문학양식이고 보면, 연애는 정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제도적 문제들과 밀접하여 소설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연애는 본

* 이 논문은 2005년 부산대학교 박사후연수과정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격소설보다 대중소설, 그리고 당대의 이념이나 사상보다 대중의 미적 취향이라는 측면에서 간과되거나 폄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들어 근대성 담론의 새로운 접근방식과 연구풍토, 특히 풍속·문화사적 연구¹⁾나 미시사적 연구²⁾ 등에 힘입어 변화되고 있다. 연애가 한국 문학사에서 논쟁적인 근대성 문제를 역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일부로 여겨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연애는 주지하다시피 서양의 ‘love’의 일본식 번역어인 채로 식민지 조선에 전해졌다. 연애는 1910년대 근대적인 남녀 관계를 일컫는 독립적 용어로 정의되기보다 이미 존재했던 결혼³⁾이나 사랑의 감정⁴⁾의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그만큼 연애는 낯설었기에 정의되는 것조차 혼란스러웠던 용어였지만, 1920년대 전반기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실제로 모두를 지배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으로서는 모든 사람을 지배했을 만큼”⁵⁾ 강

-
- 1) 한국 근대문학에서 풍속·문화사적 연구물들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명직, 『모던 뽀이, 경성을 거닐다』, 현실문화연구, 2003.;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1920년대 초반의 문화와 유행』, 현실문화연구, 2003.;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푸른역사, 2003.; 이경훈, 『오빠의 탄생: 한국 근대문학의 풍속사』, 문학과지성사, 2003.; 이승원, 『학교의 탄생』, 휴머니스트, 2005.; 전봉관, 『황금광 시대』, 살림, 2005.; 강심호, 『대중적 감수성의 탄생』, 살림, 2005.; 김미지, 『누가 하이카라 여성을 데리고 사누』, 살림, 2005.; 김주리, 『모던 걸, 여우목도리를 버려라』, 살림, 2005.; 백지혜, 『스위트홈의 기원』, 살림, 2005.; 소래섭, 『어로 그로 넌센스』, 살림, 2005.; 이승원, 『소리가 만들어 낸 근대의 풍경』, 살림, 2005.
 - 2) 연애를 근대적 표상으로 간주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담론적 의미를 살핀 대표적 논문은 다음과 같다. 서영채, 『한국근대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과 의미에 관한 연구-이광수, 염상섭, 이상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2002.; 김미지, 『1920~3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연애’의 의미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1.; 최영석, 『근대 주체구성과 연애서사-계몽성과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2002.; 김지영, 『근대문학 형성기 ‘연애’ 표상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4.; 임정연, 『1920년대 연애담론 연구-지식인의 식민성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6. 등이 있다.
 - 3) 송진우, 『사상개혁론』, 『學之光』, 1915.5.
 - 4) 이광수, 『婚姻에 대한 管見』, 『이광수전집』 제17권, 삼중당, 1962, 52~61쪽.
 - 5) 권보드래, 위의 책, 17~18쪽.

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유행하였다.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연애는 외래적인 영향으로 들어왔으나 사회의 내재적인 요구가 뒤따르면서 활성화되었던 셈이다. 특히 소설은 연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 갈망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매개자로 작용한다.

1920년대 연애를 다룬 소설은 이전 시기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다가섰다. 식민정책의 변화로 출판·언론 분야의 제재가 완화되자 단행본뿐 아니라 다양한 이념을 내세운 잡지들과 여러 일간신문 등으로 발표지면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1920년대 동인지 문학은 당대 변화의 물결 속에서 근대소설의 형성을 주도했지만, 문학에 대한 소양과 열정을 지녔던 소수 지식인들만의 소통 이상으로 보기 힘들다. 그만큼 당대 대중들의 갈망과 갈등을 읽어내는 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는 매체가 바로 일간신문이다. 가독성과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구독인구의 비중이 크지 않으나, 동인지들의 소통 방식이나 유통 경로에 비해 대중적인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친일기관지 『매일신보』가 번역 혹은 번안 소설을 통해 오락성과 상업성에 치중했던 것도 이러한 대중적 소통을 감안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동아일보』는 같은 시기 『매일신보』의 소통 방식과 격을 달리 한다. 『동아일보』는 1920년 4월 1일, 민족주의·민주주의·문화주의를 내세우고 창간된 유일한 민족진영 신문이다.⁶⁾ 때문에 신문 주주모집과정부터 대중적인 호응을 받았던 『동아일보』는 적어도 1920년대 전반기 독보적

6) 『동아일보』는 이상협(李相協) 명의로 발행 허가되었으며, 발기인 대표 재벌가 김성수(金性洙)를 위시하여 민족주의 진영의 인사로만 구성되었다. 이에 반해 예종석(芮宗錫) 명의로 발행 허가를 받은 『조선일보』는 초대 사장인 조선산업은행 두취조진태(趙鎭泰) 등 주요 인사들이 한일 동화주의 단체인 대정실업친목회 일원들이었다. 그리고 이동우(李東雨)·민원식(閔元植) 명의로 허가한 『시사신문』은 친일본주의를 표방하는 국민협회의 기관지였다. 이렇듯 창간 당시부터 민족진영만의 신문은 『동아일보』뿐이었다. 최준, 『한국신문사』, 일조각, 1990, 184~188쪽.

인 공적 담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⁷⁾ 『동아일보』에 연재된 신문소설 또한 유일한 민족진영 일간지의 막중한 책무를 간과할 수 없었다. 『동아일보』는 오락성 짙은 번역 작품보다는 보도성과 지도성의 기능에 보다 다가선 작품들, 특히 순수 창작품을 싣기 위해 애썼다. 기성 작가들뿐 아니라 새로운 작가층, 나아가 두터운 독자층 확보를 위해 현상공모나 독자문단을 활용하는 데 적극적이었다.⁸⁾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제재의 소설들이 선보였는데, 특히 연애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1920년대 소설에서 연애담은 단순히 대중들의 미적 취향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김남천의 지적처럼 그 자체가 개인이 속한 사회계층의 사상이나 관습 등의 집약적 표현⁹⁾이라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소설에서 연애담은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경험되는 주관적인 감정의 내밀한 변화를 통해 당대의 다양한 제도와 이념, 관습들이 충돌하고 조율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¹⁰⁾ 당시 연애가 많은 청춘

7) 1924년 3월 31일 최남선이 민족주의 민간신문 『시대일보』를 창간하고, 같은 해 9월 13일 『조선일보』가 민족진영의 신문으로 거듭날 때까지 『동아일보』의 영향력은 독보적이었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공적 담론의 장으로 대중에게 각광받는데 큰 공헌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이상협이다. 그는 1924년 『조선일보』로 자리를 옮겨 대개혁을 감행, 독자 물이에 성공하였고, 1925년 9월 『시대일보』를 넘겨받아 『중외일보』를 창간, 주재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그의 이력은 『동아일보』의 인지도에도 영향을 미쳐 처음에는 『조선일보』와, 다음에는 『중외일보』와 독자들을 이분, 삼분하는 데 조력한다. 따라서 『동아일보』가 독보적으로 대중적인 공적 담론의 장 역할을 담당했던 시기는 1924년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준, 위의 책, 200~259쪽 참조.

8) 1920년대 『동아일보』의 신문소설에서 단편소설의 비중은 적지 않다. 특히 현상공모나 독자문단의 소설들, 특히 3회분 이하의 짧은 소설을 모두 포괄한다면 90여 편을 상회한다. 이들 단편소설들은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당대 대중들의 기대지평과 취향, 나아가 헤게모니의 역학관계를 고찰할 수 있는 유효한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글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으나 다음 기회를 빌어 고찰하고자 한다.

9) 김남천, 『조선문학과 연애문제』, 『신세기』, 1939.8.

10) 이선옥, 『돈, 성, 사랑 문제의 복합성에 대한 인식과 한계-『사랑과 죄』, 『연애소설이란 무엇인가』, 대중문학연구회 편, 국학자료원, 1998, 72~73쪽 참조.

남녀들에게 선망의 기제였지만 전통적인 제도와 규범, 관습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더욱이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조선사회에서 실천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여성이 연애의 주체로 당당히 나서 유행을 주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인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일대 사건이었다. 따라서 1920년대 소설에서 연애담은 3·1운동 이후 변화된 사회상과 다양한 이념들의 갈등 양상을 함께 껴안고 있었던 셈이다.

이 글은 『동아일보』가 공적 담론의 장으로 역할을 담당했던 1920년대 전반기에 발표된 신문소설, 특히 창작 장편소설을 대상으로¹¹⁾ 당대 연애 담론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장편소설만을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공적 담론의 장에서 다양한 독자층의 관점들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신문소설의 연애담론을 살필 때는 담론의 제반적 특성, 그러니까 담론이 단순한 기호의 체계가 아니라 “말하고 있는 대상을 체계적으로 형성시키는 일종의 실천”이며, “동일한 전략 내에 다양하고 모순된 담론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푸코의 관점을 따른다.¹²⁾ 그러니까 소설양식을 통해 드러난 연애담론의 일정한 효과들에 주목할 것이다. 신문소설에서 연애를 구성하는 대상과 조건을 표상하는 방식을 통해 당대 사회의 지배적 담론과 갈등하거나 교류하는 대중의 사상과 행위를 엿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1) 1920년대 『동아일보』에 연재된 중·장편소설은 총 20편이지만, 연애 문제를 다룬 창작소설은 8편이다. 그러나 당대 『동아일보』의 역할을 문제 삼을 때 연구 대상은 총 3편으로 국한되며, 구체적인 작가와 작품은 다음과 같다. 나도향의 『幻戲』(1922.11.21~1923.3.21), 이희철의 『泣血鳥』(1923.6.2~10.28), 염상섭의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1923.8.27~1924.2.5). 이 글에서 작품의 인용은 이희철의 작품을 제외하고 해당 작가의 전집, 그 권수와 면수를 밝히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12) 미셸 푸코(이규현 옮김), 『성의 역사』, 나남, 1995.와 미셸 푸코(이정우 옮김), 『지식의 고고학』, 민음사, 2000, 제1장 참조.

II. 『동아일보』와 여성 담론

『동아일보』는 1920년 4월 1일 사지(社指)에서 “朝鮮民衆의 表現機關으로 自任”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을 만큼 열렬한 지지를 얻었던 신문이다. 3·1운동 이후 식민지 조선의 당면 과제들과 향방을 공론화하는 데 효과적인, 유일한 민족적 매체였던 것이다.

1920년대 『동아일보』는 주로 석간 4면으로 발행되었다.¹³⁾ 당시 1면은 조선사회에 새롭게 요청되거나 개선해야 할 제도뿐 아니라 외국의 정치나 사상 동향을 소개하는 기획기사를, 2면과 3면은 조선의 사회적 흐름을 다룬 보도기사나 광고를, 4면은 문화 관련 보도기사나 신문소설과 같은 교양물들을 주로 실고 있었다. 여기에서 1920년대 전반기에 여성교육과 여성해방운동에 관련된 기사들이 부쩍 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때 신문지면의 구성과 기능이 신문소설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면,¹⁴⁾ 『동아일보』의 신문기사들이 조선 사회의 여성 담론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었느냐는 문제는 신문소설의 연애담론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여성 교육과 관련된 기사들은 창간 이후 지속적으로 다루어졌으며, 대부분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계몽적 성격이 짙다. 당시 여성 교육에 대한 관심은 동경 유학생의 졸업¹⁵⁾을 비롯한 여학교의 졸업식과 입학식이 기사화될 만큼 지대하였다. 이러한 관심은 유학생들이나 조선여자교육회가 중심이 된 강연회들이 성황을 이루었던 데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거액의 기부금이 모일 만큼 여성 교육에 대한

13) 『동아일보』는 1924년 11월 24일부터 일대 쇄신을 단행한 『조선일보』가 석간 4면, 조간 2면으로 조석간 6면제를 시행한 것에 자극받아 1925년 8월 1일부터 조간 4면 석간 2면으로 조석간 6면제를 시도하였으나 열흘 후 석간 4면제로 다시 되돌아갔다.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석간 4면제를 유지하였다.

14) 천정환, 앞의 책, 276쪽.

15) 『今春學窓을 出한 東京留學의 女學生』, 『동아일보』, 1921.4.8.

반향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¹⁶⁾ 그렇다면 당시 여성 교육은 어떻게 담론화되었는가.

그러면女子의分이란것은무엇인가요—完全한人格우에슨 賢母良妻라는것이곳이것이겠습니다. 이갓치말씀하면너머抽象의일뿐만아니라時代에뒤진말이라하겠스나우리女子로서內助의 策을나타내이고—國의 將來運命을 占할第二國民 卽子女教育의 責任을 다함아 잊지 우리女子의不名譽한賤役이요 奴隸的奉仕라하겠습닛가, 今日의우리程度로서男子를도읍고子女의教育을完全히하야家運의振興을計할만도 荊恐不及이갓거늘이것도다하지못하고歐米婦人界의風潮만쏘치라함은俗諺에족새가황새를짜라가는格이아니겠습니까!¹⁷⁾

인용문은 당시 여성 교육의 목표가 “完全한人格우에슨 賢母良妻”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인격자각을 바탕으로 현모양처를 교육하는 데 목적을 둔 셈이다. 이때 현모양처라는 목표는 “男子를도읍고子女의教育을完全히하야” “家運의振興”뿐 아니라 “一國의 將來 運命”을 온전히 하는 데 있다. 특히 “第二國民”이 될 자녀교육에 대한 강조를 통해 현모양처라는 교육 목표가 여성의 “不名譽한賤役”이나 “奴隸的奉仕”가 아니라 당연한 소임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교육론이 식민지 조선의 여성 지도자에게서 거론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모양처의 여성관은 당시 민족주의 진영의 교육목표인 동시에 일제의 식민지 여성교육의 목표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 진영에서 여성의 교육목표를 현모양처에 두었던 것은 민족독립국가 근간이 될 가정과 그것의 온존을 위한 여성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에서 현모양처라는 목표는 전통적인 유교적 여성관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일제는 현모양처 여성관을 근대국민 형성 이데올로기로 강제하였다. 교육제도를 통해 여성을 의식으로 무

16) 『新女子의 教育熱-십일일녀자강연회의성황 주석에서기부기록집권』, 1920.6.13.

17) 李一貞, 『男女의同權은人格의對立』, 『동아일보』, 1920.4.3.

장된 정신적 근대국민으로 개조하려 했던 것이다.¹⁸⁾ 이것은 1920년 ‘고등여학교 개정’ 제1조에서 “국민도덕의 양성”과 “부덕함양”을 들어 일제 본국의 여성들에게 현모양처의 여성관을 강제했던 것과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¹⁹⁾ 일제는 여성이 국민이 되는 기준을 현모양처에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여성관은 일본에서 심한 반발을 낳았으나, 식민지 조선에서는 인용문에서 보듯 당연한 소임으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일제의 숨겨진 책략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동조할 가능성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외국의 여성해방운동과 관련된 기사들은 1920년 전반기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여성의 인격 자각과 함께 권리의 올바른 주장과 실행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自己로 사는 婦人」²⁰⁾, 「人類史의 異彩」²¹⁾, 「婦人問題의 概觀」²²⁾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婦人問題의 概觀」은 “生田長江 本間久雄兩氏 所著인 社會問題十二講中에서 收集紹介”한 글로, 총9장 전19회에 걸쳐 부인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

18) 일제가 근대 국민형성 이데올로기를 강제한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통혼민적수속법’(1926.6.7일 실시)과 같은 법제화된 호주 가족제도를 마련하여 식민지 조선인을 형식상의 근대국민으로 재창조하는 것이었다. 그 시도는 법적 구속력 때문에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다른 하나는 교육제도를 통해 정신적으로 무장하거나 내면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대 조선 여성들이 천황에 대한 충성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이거나 유교적 여성관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못했다. 홍양희, 「현모양처론과 식민지 ‘국민’ 만들기」, 『역사비평』제52호, 2000년 가을, 372쪽.

19) 가와모토 아야, 「양처현모사상의 등장과 ‘부인개방론」, 『역사비평』제52호, 2000년 가을, 361~362쪽.

20) 이 기사는 “大版毎日新聞에 興謝野晶子氏가執筆한글”을 재기고한 것으로, 특히 부인들에게 “個性의解放을要求하고 人格의圓滿을高唱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自己로 사는 婦人」(1~4), 『동아일보』, 1920. 6.20~21, 6.23~24.

21) 이 기사는 “女流革命家列傳”이라는 가제에서 보듯, “헬프만”, “찰쭈릭”들과 같은 외국의 유명 여성혁명가의 삶과 주장들을 다루고 있다. 「人類史의 異彩」, 『동아일보』, 1921.4.2~10.

22) 「婦人問題의 概觀」, 『동아일보』, 1922.6.13~6.29.

다.²³⁾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부인 문제들 중 “부인운동의 신도덕”, “자유이혼론”, “모성보호론”에서 엘렌 케이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엘렌 케이의 자유연애론과 자유이혼론이 조선이나 일본 뿐 아니라 서구에서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조선 사회에서 여성해방운동은 엘렌 케이를 비롯한 여성해방론자들이 표방했던 이념과 사회적 실천 사이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일으키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여성의 인격의 자각과 남녀평등의 필요성이 주장되면서 여성과 관련된 사회 전반의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이 논의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家庭生活의 改造』²⁴⁾는 육아법, 의복제도, 취미나 오락의 측면에서 여성의 생활개선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新進女流의 懿焔』²⁵⁾은 조선 여성의 제반 문제, 즉 교육, 연애, 결혼, 문화, 육아 등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개선 방향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男子가 女子로=女子가 男子로』²⁶⁾에서는 조선의 남녀 저명인사들을 필자로 하여 성역할을 달리 했을 때 남녀평등의 방향과 소신을 다루고 있다. 이렇듯 남녀동등권의 입장에서 여성의 인격 자각의 문제는 부인이나 어머니로서의 존재를 꺼안고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자유연애나 연애결혼과 관련된 상반된 담론들이 양산되고 있었다. 특히 신여성의 자유연애 문제는 논쟁의 초점에 놓여 있었다. 신여성의 자유연애는 여성 지식인 내부에서도 입장이 양분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김원주와 이일정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김원주는 신여성의 자유연애 시비가 서구와 “가튼快活하고健全한社會”에 비해 “그러

23) 각 장은 1.부인운동의 유래, 2.부인운동의 신도덕, 3.자유이혼론의 시비, 4.참정권 문제와 그 운동의 각 양태, 5.참정권운동의 이론적 근거, 6.부인과 직업문제, 7. 직업문제의 반대론, 8.모성보호론, 9.서구대전과 부인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24) 『동아일보』, 1921.4.7~13.

25) 『동아일보』, 1921.2.21~3.10.

26) 『동아일보』, 1922.1.1~8.

한女子를理解하고活用할만콤포우리社會”나 가정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한다.²⁷⁾ 그러면서 신여성의 자유연애에 대해 “함부로올타그르다고 말할수가업는큰문데”라고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²⁸⁾ 이에 비해 이일정은 신여성의 자유연애는 “축새가황새를짜라가는格”으로, 특히 “貞操觀念이地를一覽하야女子의神聖을賣買하고品位를低下케한點에이르러서新女子는一大罪跡을씻쳤다”고 강력히 비판한다.²⁹⁾ 이러한 여성계 내부의 입장 차이는 결국 신여성의 자유연애 사상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연애의 자유나 자유연애 문제는 무엇보다 조선사회를 떠받들던 전통적인 결혼제도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의 결혼제도가 꺼안고 있던 조혼의 관습³⁰⁾, 축첩의 방임³¹⁾, 위압적 부부관계³²⁾들과 맞물려 사회적 파장이 컸다. 여성의 인격 자각은 여성이 남편의 낮은 신분이나 무식을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³³⁾ 등 이혼율의 증가로 표면화 되거나³⁴⁾ 자살 사건³⁵⁾을 일으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연애 자체가 화

27) 金元周, 『女子教育의必要』, 『동아일보』, 1920.4.6.

28) 金元周, 『近來의戀愛問題』, 『동아일보』, 1921.2.24.

29) 李一貞, 앞의 글.

30) 『本妻를毒殺하얏다는-청주계집허성녀의공소공판 이런일이모다조혼의큰폐해』, 『동아일보』, 1921.7.18. 이러한 폐해를 없애고자 법령이 시행되었으나 시행 전후(『近來流行되는早婚熱-사월일일부터법령이난다고각처에서불야불야남채성례』, 『동아일보』, 1922. 3. 8.)를 비롯한 그 이후에도 조혼의 관습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31) 당시 축첩으로 인한 처첩간의 갈등은 살인 등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었다. 『愛情에燃하는嫉妬의火』, 『동아일보』, 1921.7.24, 『嫉妬뒤흔헤本妻를慘殺』, 『동아일보』, 1921.8.22, 『本妻를毆打殺害』, 『동아일보』, 1922.5.30.

32) 당시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부부관계가 살인이나 자살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我妻를毆打致死-허락업시킨정에간것이원인』, 『동아일보』, 1921.9.6, 『夫婦間不和로 자살하라한녀자』, 『동아일보』, 1922.5.23.

33) 『流行性的의離婚訴訟-대기는남편의부족을들어 여자편에서고소함이다수』, 『동아일보』, 1921.9.30, 『流行性的의離婚訴訟-경성에서금념임의오십여건 원인은자각업는일시류형병』, 『동아일보』, 1922.6.10, 『身分이卑賤하다고 여자가리혼청구』, 『동아일보』, 1922.6.16.

34) 결혼수에 대비한 이혼율은 1923년 3.4%이었던 것이 1932년에는 5.1%로 매년

류병³⁶)이나 자살사건³⁷) 등으로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었다. 이같은 기사들을 두고 볼 때 조선 사회 내부에서 자유연애뿐 아니라 연애의 자유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동아일보』 기사들은 조선 사회에서 여성교육과 여성해방운동을 둘러싼 상이한 담론들의 탐색과 충돌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당대 독자들이 이러한 담론들의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때 1920년대에 이르면 신문매체가 아니더라도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층위의 두터운 독자층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동아일보』의 한 기사에 따르면, “근리에 우리조선사회에도 지식을 요구함이 전에 배하게되야 청년학식은 물론하고 중년로년과 부녀자까지도 새로운 지식을 만히 요구하는동시에 외국서적을 만히보”며, “세계덕문호가 지은 걸작”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밝히고 있다.³⁸) 여기에서 보듯 당시 독자층은 “청년학식”에만 집중되지 않고 연령과 성(性)을 불문하고 확대되고 있었다.³⁹) 1920년에서 1925년 사이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독서인구가 급증하고, 이들의 독서열은 교과서나 수험서 중심의 기능적 독서뿐 아니라 취미로서의 독서현상을 배태하기 시작하였다.⁴⁰) 특히 후자는

상승하였다. 「최근 10년간의 혼인 이혼수」, 『신여성』, 1933.9, 54~57쪽.

35) 「男便의 無識을 비판하야자살」, 『동아일보』, 1922.6.10.

36) 「青春男女의危機 新구사상이밧귀는이제 청년남녀의주의할화류병 야소교회에서 일제히선던」, 『동아일보』, 1921.5.15.

37) 「戀愛自殺도 一風潮-십사일밤중삼청동술밭헤서런애에실패한자의자살소동」, 『동아일보』, 1922.6.16.

38) 「讀書界의 傾向-文藝思潮書類가 中心」, 『동아일보』, 1920.5.12.

39) 천정환은 1920~1930년대 독자층을 전통적 독자층, 근대적 대중독자, 엘리트적 독자층으로 삼분하고 있다. 천정환, 앞의 책, 272~279쪽 참조. 그의 논의에 덧붙여 근대적 대중독자와 엘리트 독자층의 교집합은 「독자문단」 등을 통해 등단한 신문소설의 창작층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그들의 존재 또한 고려해야 한다. 김말봉이 『동아일보』의 「독자문단」의 “신춘문단”에 노초(露草)라는 필명으로 단편 「식집사리」(1925.4.18~4.25)를 발표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독자문단」은 신문매체를 매개로 근대적 대중독자뿐 아니라 엘리트적 독자층까지 두루 포섭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계덕문호가지은 걸작”에 대한 선호에서 보듯 근대적 문명화에 대한 강한 욕망을 반영하고 있었다. 교양적 측면에서 보자면, 당시 조선사회에는 진화론적 사유와 기독교, 맑시즘, 엘렌 케이와 콜론타이의 연애론 등의 서구의 사상이나 이념을 다룬 서적뿐 아니라⁴¹⁾ 와일드, 뒤마, 톨스토이, 투르게네프, 셰익스피어, 입센, 고리키 등의 문학작품들이 번역·소개되어 많이 읽혔던 셈이다.⁴²⁾ 그것은 문화계의 중심이 연극에서 문학, 특히 소설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렇듯 당시 다변화된 독자층과 독서열은 특히 연애의 자유나 자유연애에 대한 비판적 담론에도 불구하고 연애의 유행을 이끌어내는 밑바탕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아일보』에 연재된 신문소설을 통해 형성된 연애 담론과 그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Ⅲ. 근대적 연애 모델과 연애의 환상성-《幻戲》의 경우

나도향의 《幻戲》는 1922년 11월 21일부터 1923년 3월 21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첫 창작 장편소설이다. 1921년 『백조』동인으로 문단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1여 년만이었던 21세의 나도향이 대표적인 일간지 『동아일보』에 신문소설을 연재한 것은 문단으로나 신문사로서나 파격적인 일이었다. 연재에 앞서 그가 “쓴 지가 일년이나 된” 작품이었으나 “터 잡히지 못”하고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내면적 변화”를 두고 볼 때 “미숙한 작품”이라는 겸양의 자세를 보인 것도 연재전후의 상황 때문이라 여겨진다.⁴³⁾ 하지만 작가의 발언 마냥 《幻戲》에 대한 평가

40) 천정환, 앞의 책, 171~202쪽 참조.

41) 김지영, 『‘연애’의 형성과 초기 근대소설』, 『현대소설연구』제27호, 2005, 56~57쪽 참조.

42) 권보드래, 앞의 책, 91~119쪽과 천정환, 위의 책, 186~187쪽, 285~302쪽 참조.

43) 주종연·김상태·유남옥 엮음, 『나도향 전집』하권, 집문당, 1988, 102쪽.

는 ‘미숙함’라는 미망에서 쉽게 놓여나지 못했으며,⁴⁴⁾ 1990년대에 들어서야 개인의 발견과 근대적 사랑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받기 시작했다.⁴⁵⁾

《幻戲》는 첩의 딸 이혜숙과 동경 유학생 김선용, 재산가의 아들 이영철과 기생 설화 사이에 중앙은행 사장의 아들 백우영이 개입하면서 벌어지는 연애 사건이 전면화되어 있는 소설이다.

우선, 이 소설에서 온전한 연애의 주체이자 대상은 근대 교육을 받은 지식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연애의 첫째 요건은 남녀 모두 당시 새로운 권력층으로 부상하던 근대적 지식인이다. 특히 연애 대상인 근대적 지식인을 구성하는 방식은 근대적인 낭만적 사랑의 환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이 점은 이혜숙과 김선용에게서 잘 드러나 있다.

이혜숙은 “사랑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품고 있는 여학생으로, 자신이 욕망하는 ‘신식’ 연애와 결혼의 청사진을 어머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학교만 졸업하면 어떠한 양복 입고 모자 쓰고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온 암전하고 재조있고 돈 많고 명망있는 젊은 사람하고 혼인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바로 그것이다. 즉 여학생인 그녀가 욕망하는 연애 대상은 지적 능력뿐 아니라 외양, 품성, 재력 어느

44) 조연현은 《幻戲》를 20세에 불과한 작가의 “雅氣滿滿한 哀傷의 感傷의” “習作”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69, 421~423쪽.) 이러한 관점은 감상적 낭만주의 계열의 소설로 평가한 백 철의 논의(백 철, 『신문학사조사』, 백양당, 1949)나 과도한 감상성, 문장 표현의 미숙성, 사건 전개와 작위성 등 미적 완성도가 떨어진 작품으로 평가한 김우중의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 성문각, 1978, 189~195쪽.)

45) 나도향의 《幻戲》를 다룬 근자의 대표적인 글은 다음과 같다. 진정석, 「나도향의 『환희』 연구」, 『한국학보』 제76호, 1994년 가을.; 장수익, 「나도향 소설과 낭만적 사랑의 문제」, 『한국 근대소설사의 탐색』, 월인, 1999.; 김운선, 「나도향 소설에 나타나는 ‘낭만적 사랑’의 문제」, 『한국문학과 낭만성』, 우리어문학회편, 국학자료원, 2002.; 황 경, 「나도향 소설의 사랑에 대한 고찰」, 『작가연구』 제9호, 2000.; 정혜영, 「나도향의 <환희>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2집, 2002.; 임주탁, 「1920년대 초반 소설의 근대적 특성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42집, 2006.

하나도 빠지지 않는 근대적 지식인, 특히 일본 유학생이다. 이러한 욕망 때문에 오빠 이영철이 소개한 일본 유학생 김선용이 “얼굴 검고 머리 길고 아무렇게나 지은 조선옷을 입고 시골 냄새가 도는, 보기에 아름답다 할 수 없는 청년”이라 “낙망”하는 반면 “어떤 고운 양복 입고 하얀 칼라에 자주 넥타이를 한 얼굴도 어여쁘게 생긴” 백우영에게 이끌린다. 그럼에도 이혜숙은 김선용을 연애 대상으로 여기고 이상적인 ‘스위트 홈’을 공상한다. 여기에서 ‘스위트 홈’은 낭만적 사랑의 이상인 근대적 결혼생활을 표상하는데, 그것은 그녀가 서구의 연애와 결혼 모델을 모방하고 이상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선용이 동경 유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낭만적 이상을 자극하는 동기가 되었던 셈이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차별화된 성역할을 구조화할 때, 낭만적 사랑은 특히 여성이 근대적 가정을 형성하고 존속시키는 규범적인 사랑으로 자리매김한다.⁴⁶⁾ 낭만적 사랑과 그 이상으로서 ‘스위트 홈’이 ‘근대’라는 허울 속에서 여성 스스로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와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동의하도록 추동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혜숙이 연애 자체를 욕망하는 가운데 연애 대상을 구성한 행위는 구체적인 실체와 감각을 뒤로 한 채 이상적인 이념형을 정형화하고⁴⁷⁾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만큼 그녀는 근대적 연애와 상상적 관계, 즉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셈이다. 그래서 현실세계에서 연애 과정은 매우 단조롭지만 급진전하는 양상을 떨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은 김선용에게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김선용은 “청춘의 타오르는 열정의 불길”로 형상화되는 연애 충동을 지닌 동경 유학생이다. 하지만 그는 “돈 없고 학식 없고 인물 곱지 못한 자기에게 어떠한 어리석은 여자가 참사랑을 구하여 따라오리요”라는 열등한 자기인식 끝에 “이상적인 아내”나 “신성한 연애”가 자신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46) 채크린 살스비(박찬길 옮김), 『낭만적 사랑과 사회』, 민음사, 1985, 223~239쪽 참조.

47) 박형지·설혜심, 『제국주의와 남성성』, 아카넷, 2004, 128~129쪽.

“공상”에 불과하다고 단정 짓는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구체적인 대상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연애 대상의 시선으로 자신을 대상화하여 자신의 자격과 조건을 앞서 탐색하여 열등감을 가중시킨다. 그것은 낭만적 사랑을 상징하고 구축한 자기세계가 허약함을 폭로하는 것인데,⁴⁸⁾ 이혜숙을 소개받고서도 백우영이 개입하자 그녀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하지만 청순한 여학생 이혜숙이 그에게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는 자신이 열망한 낭만적 사랑이 그녀를 통해 곧 현실화될 듯 여긴다.

이렇듯 이혜숙과 김선용은 모두 구체적인 연애 대상이나 연애 감정 이전에 연애에 대한 욕망이나 충동이 우선하고 있다. 즉 “사랑의 감정이 생기기 전에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이 먼저 자라”⁴⁹⁾라고 있는 형국이다. 그만큼 그들이 욕망하는 연애 대상은 지극히 이상적인 환영의 형태를 띤다. 때문에 그들이 실제 현실에서 겪는 갈등은 심각한 국면에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이혜숙이 김선용 대신 이상적인 남성상인 백우영에게 마음을 내비쳤다가 순결을 상실하는 것이나 김선용이 이혜숙의 배신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이러한 극단적인 갈등 국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연애 대상에 덧씌운 이상형은 근대적인 서구 문명에 대한 선망을 절대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전통적인 결혼제도에 대한 배제와 열외의식을 담보로 할 뿐 아니라 서구적 ‘문명’을 통한 내부 식민주의⁵⁰⁾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어 다분히 문제적이다.

다음으로, 이 소설의 여성 작중인물들이 연애의 주체이고자 할 때 육체적 순결이 제일 조건으로 작용한다. 낭만적 사랑은 사랑의 주체로 개

48) 소영현, 『근대소설과 낭만주의』, 『한국 근대문학 양식의 형성과 전개』, 상허학회, 깊은샘, 2003, 79쪽.

49) 권보드래, 앞의 책, 100쪽.

50) 내부 식민주의는 외부 식민주의-규범적 식민주의의 지배질서가 내면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해롤드 월프(염홍철 옮김), 『제3세계와 종속이론』, 한길사, 1988, 255~282쪽 참조.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내부 식민주의는 서구 근대를 절대적 보편으로 추종하고 조선 내부에 그것을 재생산하는, 식민주의의 모방과 내면화를 거쳐 형성되었다. 임정연, 앞의 글, 3쪽.

인을 호출하고 정신적 교감을 통해 완전한 주체로 거듭나게 하는 근대적 사랑의 대표적 양상이다. 그것은 성과 결혼을 사랑 아래 통합시킴으로써 사랑한다는 사실 자체를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기제이다.⁵¹⁾ 특히 낭만적 사랑이 자기준거로 삼는 숭고함은 여성의 순결에 대한 강조로 드러난다. 이러한 낭만적 사랑을 연애 모델로 삼는 이 소설에서 여성의 순결 여부는 연애의 중요한 변수이다.

이영철과 설화가 근대적인 연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설화가 기생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여기에서 기생은 육체적 순결을 상실한, 타락한 여성임을 표상한다. “얼굴에 분칠하고 입술에 연지바른 더러운 계집”이라는 설화의 자기인식은 그녀 스스로 낭만적 사랑을 추구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참사랑”을 욕망하는데, 그것은 “여자도 사람”이며 “더러운 계집의 가슴 속에도 참사랑이 있는 것”을 인정해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기생이 아닌 인격적 주체로서 자신을 대해 주기를 요구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영철 또한 설화를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기보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고 배려한다. 기생과의 감정적 교감은 사랑이 아닌 연민이나 동정에 기반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이영철이 연애 대상을 여학생, 특히 순결한 여학생에 두고 있었음을 은연중에 시사한다.

한편 결혼 후 이혜숙과 귀국한 김선용 사이에서 연애에 대한 열망은 서로 다른 대상으로 전이되는데, 거기에는 육체의 순결 여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결혼 후 이혜숙은 “정월(晶月)”로 개명하는데, 그것은 이름 바꾸기를 통해 그녀가 순결한 마음과 몸을 지닌 존재로 거듭났음을 의미한다. 즉 이혜숙이 다시 연애의 주체이자 대상이기를 욕망하고 있음을 표상한다. 그녀는 귀국한 김선용과 다시 연애를 꿈꾸는데, 문제는 김선용이 그녀를 연애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녀에게는 이름

51) 앤소니 기든스(배은경·황정미 옮김),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1996, 85~91쪽.

바꾸기를 통해서도 회복될 수 없는 순결성 상실이 지워지지 않는 상흔처럼 온전하게 남아있으며, 그래서 “정월(晶月)”은 더욱 현실적인 존재감이 없는, “소복(素服)한 천녀(天女)”나 “귀신 같은” 존재로 다가서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김선용은 정월을 만날 때마다 “일본에서 두 주일 동안 보살펴주었던 여학생”을 대상으로 상상적 연애를 한다. 그 여학생은 예전의 이혜숙이 그러했듯 선용의 이상형, 즉 순결을 간직한 근대적 여성을 표상한다. 그렇기에 그는 그 여학생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과도한 열정과 기대를 품는다. 그는 과거의 기억을 지우고 자신이 선망하는 연애를 진행 중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근대적 연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 공간, 동경으로 떠난다. 이렇듯 두 작중인물은 구체적 현실이나 실현가능성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연애에 대한 욕망을 끊임없이 욕망하는, 그야말로 꿈같은 장난(幻戲)을 지속하고 있다 하겠다.

그럼에도 이혜숙의 죽음은 현실에서 실패한, 근대적 연애 모델과의 상상적 연애에 환상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것은 설화의 죽음이 이영철에게 인격적 존재로 승인받기 위한 극단적 선택이었던 것과 구별된다. 결혼 전후를 통틀어 혜숙이 지닌 연애 열망은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힘든 현실을 욕망한 혐의가 짙다. 결혼 전에는 첩의 딸이라는 멍에를 지우고 순결한 여학생이라는 표상만을 내세우며 낭만적 사랑의 이상을 욕망한다면, 결혼 후에는 개명행위를 통해 훼손된 육체적 순결뿐 아니라 백우영이 제공한 물질적 풍요를 향유한 흔적을 숨기고 순수하고 순결한 여성이 되어 연애를 다시 욕망한다. 이러한 그녀의 욕망은 현실세계에서 구체적인 타자나 대타자의 실체와 맞부딪혔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녀는 죽음이라는 낭만적 승화의 형식을 통해 낭만적 사랑의 환상성을 끝까지 유지시키고 있다. 환상성은 순수한 상상의 발현으로서 비합리적인 성격을 띠지만 정서적으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포장한다.⁵²⁾ 혜숙의 죽음은 현실 속에서 겪었던 열패감과 절망감, 그리고

죄책감을 ‘정월(晶月)’이 표상하는 순수성과 순결성만을 간직한 “이름 곱고 아름다운 역사”로 승화시킨다. 이로써 그녀가 욕망했던 낭만적 사랑에 대한 환상성을 고스란히 간직한다. 이러한 과정은 독자들에게 낭만적 사랑에 대한 기대감을 지속시키면서도 연애 주체인 여성이 순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지시킨다. 여성의 순결성 강조는 전통적인 유교적 세계관을 넘어 선망의 대상인 낭만적 사랑의 모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편타당한 진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일제강점기 여성 교육의 이념과도 합일된다는 점에서 근대적 연애 모델은 내부의 식민지화 가능성을 가속화시킬 혐의가 다분하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에서 전지적 작가를 대변하는 담론주체는 남성 작중인물인 이영철이 담당하고 있다. 그것은 그가 당대 조선사회의 연애 열풍에 연루되어 있으면서도 연애 문제에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는 연애 문제를 둘러싼 친구세대의 갈등, 다르게 말하면 전근대적 이데올로기와 형성중인 자유 이데올로기 사이의 충돌을 보여준다. 근대적 문명의 우월한 지위를 표상하는 유의미한 대목은 기독교에 대한 이영철의 입장과 태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그의 아버지는 아담 이브를 자기의 또한 온 인류의 시조로 믿었지만 우리의 몇만 년 전에는 사람이 모두 원숭이와 같았겠다는 다아윈의 진화론을 배운 그는 그렇게 모순되는 전설을 믿지 못하였다. 천문학에서 성무설을 배운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로 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 아니치 못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나서 죽어지면 어떻게 되나 하는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의심을 품기는 품었으나 영혼이란 참으로 사람이 죽어서 단독으로 어디로 가 버리는가? 의심하는 그는 그렇게 쉽게 천당과 지옥을 믿지 못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무엇인가를 참으로 철저히 알게 알고 싶었다.⁵³⁾

52) 로즈메리 잭슨(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53) 주종연·김상태·유남옥 엮음, 앞의 책, 124~125쪽.

인용문은 이영철이 다윈의 진화론을 들어 기독교의 창조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다윈의 진화론은 근대적 지식을, 기독교⁵⁴⁾의 창조론은 중세적인 지식(이념)을 각각 표상하며 이항 대립하고 있다. 다윈의 진화론에 견주어 기독교의 창조론은 “모순되는 전설”로 격하되고 불신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심하기의 태도나 이항 대립적 가치규정방식은 이영철이 근대적인 사유체계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윈의 진화론이 조선 사회에서 생물학상의 논의로서보다는 사회학적 입장에서 인류 사회를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⁵⁵⁾ 이영철의 근대적 사유방식은 기독교의 중세적 이념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에 그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기독교에 대한 불신은 개인적으로 아버지인 이상국의 삶의 방식에 대한 부정으로 드러난다.⁵⁶⁾ 그것은 이영철의 가출 등 신구 세대의 갈등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구조는 아버지로 상징되는 조선사회의 전통적 제도와 이념에 대한 부정으로 확대된다. 이때 그는 그것을 대체할 만한 것으로 근대적인 연애와 가족제도가 내세우며 정당화시키고 있다. 신구 세대의 갈등은 조선사회의 가족이나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의 충돌을 보여주는 동시에 선망의 대상인 근대적인 제도와 이념을 긍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사유방식을 식민지적 상황에 놓고 본다면 식민지 조선사회와 식민지 모국 일본사회의 대립과 후자의 긍정으로 의미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일제의 식민성⁵⁷⁾

54) 《幻戲》에서 ‘기독교’에 접근하는 방식은 상이하다. 기독교의 창조론을 중세적인 지식(이념)과 동궐에 놓을 때 기독교는 부정의 대상이다. 하지만 근대적 연애의 사상적 근거로서 기독교는 긍정의 대상이라 볼 수 있다.

55) 이성규, 「목적론과 다윈의 진화론」,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3, 116쪽.

56) 이상국이 기독교에 귀의하는 행위는 “죽어 천당으로 가려는” 지극히 개인주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뿐 전통적인 가부장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인물이다. 기독교의 귀의만으로 전통적이고 동양적인 세계관을 근대적 세계관으로 대체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에 노출될 위험이 농후하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幻戲》는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선망하는 근대적 문명의 일종인 낭만적 사랑의 형식과 이념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전면화하고 있었다. 이 소설은 근대적 지식인이 연애의 주체로 전면에서 나서기 시작하는 양상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남녀 작중인물들 모두 연애에 대한 열망에 몰입되어 있는 특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이 선망하는 연애는 ‘꿈같은 장난(幻戲)’으로 감지될 만큼 당대 사회적 현실과 선망했던 이념들 사이에서 갈등을 내장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 작중인물이 선택한 타협의 접점이 자살이라는 점은 그 환상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문제로 표면화되기에 충분히 보인다.

IV. 연애의 신성과 타락한 연애의 지표들- 《泣血鳥》의 경우

이회철의 《泣血鳥》는 1923년 6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연재된 소설로, 나도향의 《幻戲》가 성공적으로 연재되고 이광수의 《先覺者》가 연재 중단된 후 발표된 소설이다. 나도향의 《幻戲》가 연애를 통해 근대적인 문명에 대한 갈망을 그려내고 있었다면, 이광수의 《先覺者》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모델로 민족국가 수립에 대한 주체적인 의지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先覺者》의 연재 중단은 식민지 사회에서 문학 담론의 장에서조차 민족적 열망을 담아내는 것이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절망적 현실인식의 뒷자리를 이어받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이회철의 《泣血鳥》이다.

57) 식민성은 식민주의 정책이 식민지인의 의식과 생활을 통제하고 규율하는 과정에서 내면화하는 식민 담론적 특성을 의미한다. 김성국, 『식민지성과 한국사회 이론』, 『사회와 이론』 창간호, 2002, 140쪽.

이희철의 《泣血鳥》는 일본 유학생 서병호와 김선희의 삶, 특히 연애를 둘러싼 다각적인 문제를 전면화하고 있는 소설이다. 우선, 이 소설에서 주인공들의 유학 체험은 선망의 대상이 되기보다 그들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부정적인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서병호는 동경의 “턴던(淺田)대학” “야학부 법학과전문부”를, 김선희는 횡빈의 “전문당도 성경학원”을 수학한 근대적 지식인이다. 1920년 전후 일본 유학은 식민지 청년들에게 열등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이자 사회적 성공의 디딤돌로 다가선다. 사비(私費) 유학생의 일본행이 자유화된 1920년 이후 유학생 수가 급증하였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능하다.⁵⁸⁾ 그러나 유학 체험은 식민지 유학생들에게 일본인의 위계적이고 배타적인 시선 속에 갇혀 열등감을 강화시키는 절망적인 기제가 된다. 이것은 남성 주인공 서병호의 유학 체험을 통해 잘 드러나 있다. 서병호는 구별 짓기⁵⁹⁾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식민지 조선인, 특히 “로동자들”과 차별화하고 위계화 하지만, 그 또한 “일본 사람들의속에 끼여들”지 못하고 배제된다. 이때 식민지 모국에 대한 열등감은 식민지 조국에 대한 우월감과 함께 내재화되는 모순을 껴안고 있다. 그 결과 서병호와 같은 식민지 유학생들은 식민지 모국과 조국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중간자로 자리매김한다.⁶⁰⁾ 더욱이 서병호의 구별 짓기는 유학 체험에서 배타적이고

58) 일본 유학생 수는 1919년 당시 678명이었던 것이 1920년에는 1230명, 1922년에는 3222명으로 매년 급증하였다.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학살사건의 여파로 급감하였을 뿐 일본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40년에는 2만 명을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재일한국유학생연합회, 『일본유학100년사』, 재일한국유학생연합회, 1988, 57~58쪽.

59) 부르디외는 구별짓기 방식이 행동과 인지, 감지와 판단의 성향체계로서 개인의 역사 속에서 개인들에 의해서 내면화되고 육화되며 또한 일상적 실천들을 구조화하는 양면적 메커니즘으로 개념화한다. 특히 문화자본을 기반으로 타 계급과 구별짓기를 하는 개인의 실천감각이나 성향을 의미하는 용어로 국한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부르디외(최종철 옮김), 『구별짓기: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상권, 새물결, 1995.

60) 프란츠 파농(이석호 옮김),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인간사랑, 1998, 23~51쪽 참조.

위계적인 근대적 질서를 냉철하게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극복되지 못하고 내재화된 준거로 무차별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식민지 유학생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⁶¹⁾

이러한 측면에서 전지적 작가는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는데, 그것은 우선 서병호가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유행에 휘말리고 있다는 점에 원인을 둔다. 서병호에게 동경(東京)은 “조선에서는 맛보지못할만한맑고 신선”한 선망의 대상이다. 이때 동경은 ‘문명’의 장소로 인식되는 반면 조선의 현실은 ‘야만’의 공간으로 그의 열등감을 자극한다. 그렇기에 “일본에만가면무슨별수가나는 듯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유학을 결행한다. 일본 유학이 식민지 청년들 사이에서 신청년의 표식으로 추구되던 유행을 따르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일본 유학은 그 자체로 선택적인 열망이고 실체를 지니지 못한 관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지적 작가는 서병호를 비롯한 식민지 청년들의 일본 유학 열풍을 “폐풍”으로 규정지며 이를 경계하고 있다.

그리고 전지적 작가는 서병호의 유학체험이 근대적 문물을 피상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데에서 비판적 태도를 강화시키고 있다. 서병호는 유학생 사회에서 명예욕을 과시하기 위해⁶²⁾ “신세계사”라는 잡지사를 만들고 잡지 『신세계』를 발간한다. 그것은 당시 일본 유학생 사회를 “조흔 노름판”을 간주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동경 유학생들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호 자제 유학생들이 표면적으로 자유나 낭만을 골자로 하는 세계 사조에 탐닉하면서도 이면에서는 유희적인 삶에 길들여져 가고 있었다. 때문에 그들의 유학 체험은 근대의 실체에 접근하기보다 추

61) 최미진·임주탁, 『192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유학 체험과 근대적 특성』, 『한국문학논총』 제41집, 2005, 333~336쪽 참조.

62) 서병호가 명예욕을 과시하는 행위 이면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안을 숨기려는 책략이 숨겨져 있다. 식민지 모국에서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폄하를 감내해야 될 뿐 아니라 생활기반의 취약성으로 자신의 향락적인 소비 습성을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최미진·임주탁, 위의 글, 350쪽.

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 그것을 소비적인 형태로 향유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서병호를 비롯한 일본 유학생들은 우월하기보다 부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된다. 전지적 작가는 서병호를 비롯한 동경 유학생들의 지적 허영과 향락적 행태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견지한다. 서병호의 행위들이 내부적 식민지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내면화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둘째, 주인공들은 연애의 주체로 전면에 나서지만, 그들의 연애는 근대적인 사랑의 형식인 낭만적 사랑을 이상적인 관념의 형태로 향유하거나 그것을 호도한다. 때문에 그들의 연애 관계에서 상호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약화되거나 단절되고 있다.

어제저녁서덤에가서『기독교연애관』이란책을보고하도자미가잇을 뜻 하기에또그것이얼마큼우리의연애를리해하는데도움이될듯하기에서서『선물』로라는것보다도 제의 변치안는진심으로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영각 씨! 저는또말합니다. 우리는부유(浮遊)의련애를짜르지말고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썩지안는련애를차저잡시다.—그는정심병자를 련애하였습니다 문둥병자를련애하고안즌방이를 련애하였습니다 소경이 그를사모하고 그는 소경을 사모하였습니다 아니 간음을행한녀자 트식하는 세리(稅吏)까지도그는사랑하였습니다 원수까지도 입마초아사랑하였습니다 아야! 깃세마비의피눈물—그것은 나를리해못하는 수억만의애인을위하여 최후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피로써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나의애인들을도루찾게되었습니다.....⁶³⁾

인용문은 김선희가 “『기독교연애관』”에 감명을 받고 그것을 애인 영각에게 선물로 보낸다는 편지의 한 대목이다. 여기에서 “『기독교연애관』”은 실제 출판된 서적을 일컫기보다 작중인물의 연애관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을 표상한다. 1920년대 들어 기독교 관련 출판은 선교사 중심

63) 이희철, 《읍혈조(泣血鳥)》, 『동아일보』, 1923.7.14, 4면.

에서 유학 등을 거친 한국인 교계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 기독교 교리와 사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종교 교육에 집중되었다. 조선의 식민 지적 상황이나 제반 현실 문제를 문제 삼는 등 당시 기독교의 영향력이 종교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았다.⁶⁴⁾ 이 소설에서 언급된 “『기독교연애관』”은 성경학원에 유학중인 선희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썬지안는련애”를 통해 면면이 드러나 있다.

이 소설에서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썬지안는련애”는 박애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정신병자”나 “문둥병자”처럼 정신적·육체적 병을 앓는 사람, “간음”이나 “트식”과 같은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사람, “나를리해못하는” 사람 등 서로 다른 조건과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모두를 포용하고 평등하게 사랑하는 사상을 일컫는다. 이러한 사상은 연애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 한편으로 그것은 식민지 조국과 민족적 현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일에 우월한 가치를 둔다. 애인인 영각이 귀국을 독촉할 때, 선희는 “책한권더사서 일고 배”우는 것이 “인생의 큰련애”라는 주장한다. 즉 영각이 갈망하는 연애는 박애주의에 미치지 못하는 “부유(浮遊)의련애”이자 “속된 사랑”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연애관은 당시 민족적 현실에 대한 자각과 방향을 제시하는 계몽적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계몽적 주체의 모습은 선희가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6개월 동안 감옥생활을 하는 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썬지안는련애”는 “령덕”에만 치우친 연애의 “신성”으로 이상화되고 있다. 연애가 낭만적 사랑의 형식과 이데올로기를 내장한 근대적인 남녀 관계를 일컫는다 할 때, 선희에게 연애는 낭만적 사랑이 상층 규율로 삼는 “숭고함”, 즉 “육체적 욕망을 넘어서는 정신적 교감”만을 의미한다. 나아가 그것은 “자기의생명의 전

64) 윤춘병, 『한국기독교 신문·잡지백년사 1885~1945』,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46~191쪽 참조.

부로 생각”만큼 중요한 의미로 도약하고 있다. 이것은 영성을 강조하는 종교적 특성을 고스란히 껴안고 있다. 이렇듯 “그리스도가 가리치신 썩지안는련애”는 계몽성과 영성을 강조하는 당시 기독교의 연애관을 맥락화한 결과 연애의 신성이 그녀의 연애관을 형성시키고 나아가 규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김선희의 연애관은 연애 대상인 남성 지식인들에게 수렴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첫 연인인 신영각은 조선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이다. 그는 처음에는 연애편지를 통해 연애가 “령적”이고 “신성”한 것이라는 그녀의 입장에 동조한다. 하지만 3·1 운동 즈음, 귀국한 선희에게 “련애라는 것은 전혀 육덕이라할수잇”다는 입장을 강요하고, 그것을 끝까지 거부한 그녀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한다. 이로써 그녀는 연애의 신성을 실현하는 데 처음으로 실패한다. 나아가 두 번째 연인인 홍순일은 그녀의 연애관에 치명적인 상흔을 남긴다. “보기에 깨끗한청년”인 홍순일은 3·1 운동 가운데 만난 부유한 지식인이다. 그는 선희가 스스로 “제일생의 벗”이자 “당신의 안해”로 여기게 만든 다름 성적 욕망을 성취하는 데 성공한다. 그것은 첫사랑의 실패후 그녀가 연애의 신성이라는 연애관을 의심한 결과이다. 그러니까 그녀는 홍순일과의 관계에서 영각의 주장처럼 연애의 신성에 육체적 사랑을 접목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홍순일은 그녀가 3·1운동으로 투옥되자 곧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미국 유학을 떠난다. 이렇듯 신학문을 배우는 두 남성은 선희가 염원했던 연애의 이상과 배리된 성적 욕망을 성취하는 데 더 관심이 있으며, 그 결과 그녀가 추구하는 연애관은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만다. 이것은 그녀의 연애관이 점층적으로 쇠모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한편 서병호의 연애는 신영각이나 홍순일처럼 낭만적 사랑의 형식과 이념을 호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고학생이었던 그는 일본인 하던희삼랑(河田喜三郎)의 전폭적인 도움과 지지로 학업을 마친다. 하지만 하던

희삼랑(河田喜三郎)이 그가 딸 룡자(隆子)와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식민지 조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⁶⁵⁾ 문제는 서병호와 룡자의 관계가 낭만적인 사랑을 추구할 만큼 정서적인 친밀감을 돈독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룡자는 여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서병호를 대상으로 낭만적 사랑을 꿈꾸지만, 서병호는 룡자를 일본 여성 자체에 대한 호기심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서병호는 성적 관계를 가진 후 룡자에 대한 배려보다 하던희삼랑(河田喜三郎)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이러한 점은 룡자의 어머니의 제안으로 횡빈의 고모집에 있는 동안 임신한 룡자를 친밀하게 대하지만, 하던희삼랑(河田喜三郎)의 간접적 지원으로 독립한 이후 룡자와 딸 노리꼬를 방기하거나 냉대하는 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즉 서병호는 하던희삼랑(河田喜三郎)의 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에만 룡자를 살갑게 대하는 것이다. 그만큼 그의 연애는 낭만적 사랑과 유리된 이해타산적이고 이기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셋째, 당대 지식인의 특징인 ‘無錢有識’⁶⁶⁾이 간직한 기생성이 주인공들의 윤리적 타락을 가속화시키는 견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김선희는 고아이지만 미국인 아다손 부인의 도움으로 횡빈의 “전문당도 성경학원”까지 수학한다. 그러나 아다손 부인이 환국한 까닭에 출옥한 후 그녀는 물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때 그녀가 선택한 길은 서병호를 유혹하여 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그녀가 순결을 상실했다는 사실에 많은 부분 기인한다. 훼손된 육체는 그 자체로 타락한 연애의 표지가 된다. 육체가 훼손된 여성은 연애의 이상을 훼손시켰다는 사실만으

65) 식민지 조선인인 서병호를 동거인으로는 인정하지만 가족 구성원으로는 배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던희삼랑(河田喜三郎)이 조선인을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평소의 주장과 신념에 괴리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제의 논리는 하던희삼랑(河田喜三郎)를 비롯한 일본인 대부분이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동경(東京)은 일본 유학생에게 선망과 함께 절망을 환기하는 장소가 된다.

66) 별피, 「중산계급의 장래」, 『개벽』, 1926.2, 21쪽.

로 연애의 배제 대상이 된다. 즉 처녀성 상실이 한 여성의 과거 한 시점을 근거로 삼아 미래를 온통 기형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 이끌고 가는 동인인 셈이다.⁶⁷⁾ 첩이 된 그녀는 서병호가 “신세계사”라는 잡지사를 만들고 잡지 『신세계』를 발간하는 일을 지켜보면서 유학생들의 과시적인 소비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비판하지만, 그녀를 대하는 유학생들의 따가운 시선만큼이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만큼 그녀가 순결을 상실하고 첩이 된 현실은 유학생들보다 부도덕함을 의미한다. 김선희의 윤리적 타락은 서병호의 압송 후 경성에서 강원도 부호의 아들 리기상의 현지 처가 되는 것으로 다시 드러난다. 그녀는 신성한 연애에 좌절당하고 취약한 생활적 기반에 부대끼다 “매음녀”와 같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과거 “강한의지(意志)의소유자(所有者)”이자 “확실(確實)한 희망에 “열성덕”이었던 일본 유학생의 모습을 찾아보기란 힘들다. 부호 자제에 기대어 경성에 안정적인 거주지를 가지고 타락한 삶을 영위하면서 “련애가 최악이다”라는 감상적 한탄만 가끔씩 할 뿐이다. 이러한 그녀의 타락은 출옥한 서병호와 공모하여 리기상을 사기하는 범죄행각으로까지 치닫는다.

한편 서병호의 사기행각은 출옥 후 향락적인 소비습관에 비해 생활기반이 전무한 상황에서 빚어진다. 그는 생산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기보다 사기행각에 골몰하는데, 그것은 그가 평소 “얼굴잘생긴것” 하나만 믿고 “건방”질 뿐 아니라 “거짓말”에도 능란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김선희를 이용하여 리기상의 재산을 상당 부분 빼돌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다. 인물됨 마냥 그는 빼돌린 리기상의 재산 대부분을 자신이 챙기고, 그것을 기생집을 오가며 향락하는 데 소비한다. 결국 사기 사실을 알게 된 리기상에게 서병호는 고소당하고 김선희는 무지막지하게 폭력을 당한 후 자살하고 만다.

이러한 두 인물의 파국은 생활적 기반이 허약한 그들의 기생성⁶⁸⁾이

67) 임정연, 앞의 글, 93쪽.

윤리적 타락을 가속화한 결과물이다. 근대적 지식을 소유하였다고는 하나 피상적으로 수용한 지식이고, 더욱이 근대적 교양측면에 치우친 것이고 보면 식민지적 상황에서 현실적 기반을 마련하기는 더욱 힘들다. 그러니까 그들의 유학체험은 식민지 모국이나 조국에서 생산적인 활동기반을 마련하는 데 조력하지 못한다. 더욱이 그들의 기생성은 윤리적 타락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때 윤리적 타락은 성차를 드러내고 있는데, 남성인 서병호가 유학생의 정체성 혼란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면, 여성인 김선희는 순결을 상실한 여성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니까 서병호의 구속은 식민지 조국과 민족의 현실에 대한 자각이나 근대 문명 자체에 대한 성찰 없이 유행에 휩쓸려 근대적 지식을 과시적으로 소비하며 내부의 식민지성을 강하게 드러내 온 지난 행적에 대한 단죄라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김선희의 자살은 연애의 신성성을 이념 차원에서 재확인하기 위한 속죄 형식에 가깝다. 연애의 순결을 민족적 순수성으로 전이시키고, 이를 성윤리와 결부시킴으로써 연애의 도덕적 규범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서 전지적 작가는 뚜렷한 목적의식도 생활기반도 부재한 채 일본 유학의 열풍에 휩쓸리고 있는 식민지 청년들에 대한 경계와 비판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는다. 특히 여성 고학생의 타락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⁶⁹⁾, 전지적 작가는 ‘피를 토하며 우는 새(泣血鳥)’처럼 이러한 당대 유학생의 타락한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68) 이러한 점에서 별되는 당대 지식인들을 ‘기생계급(寄生階級)’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별피, 앞의 글, 21쪽.

69) ‘여성고학생상조회’의 결성 동기가 여성 고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물질적 지원을 받는 대신 성적 타락을 방임하거나 폭력에 의해 성적 위협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을 막고자 위함이었다. 이러한 여성 고학생의 문제들은 김선희의 윤리적 타락을 그린 《泣血鳥》뿐 아니라 염상섭의 소설들, 특히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와 《珍珠는 주었스나》에 등장하는 신여성들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문소설은 시의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女子古學生 相助會』, 『동아일보』, 1922.7.9.

V. 연애의 지식모델과 자유연애론의 진단들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의 경우

염상섭의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는 1923년 8월 27일부터 1924년 2월 5일까지 연재된 장편소설로, 작가의 중편소설 《해바라기》(1923.7.18~8.26)와 《珍珠는 주었으나》(1925.10.17~1926.1.7) 사이에 발표되었다. 이 소설은 김덕순 집에 모였던 남녀 지식인들의 복잡한 연애 사건을 당대 유행하던 연애열에 견주어 작중인물들의 서로 다른 연애관을 담아내고 있다.

첫째, 이 소설에서도 연애 주체는 일본 유학을 거쳤거나 경성에서 고등 교육을 받은 남녀 지식인들인데, 그들의 연애가 외국의 문학작품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작중인물들이 표상하는 ‘지식’은 연애의 조건이면서도 근대적 교양을 향유할 자격을 의미한다. 특히 외국 작품에 대한 독서는 연애의 선형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독서 경험 자체가 다른 어떤 경험에 앞서서 삶의 활동을 규율하는 원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⁷⁰⁾ 동경 청산학원 유학생인 경애와 일본 유학생 한규의 경우, 그들의 연애는 오스카 와일드의 일본 번역 작품인 《살로메》⁷¹⁾를 매개로 그들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그들의 대화는 《살로메》의 경우에 비추어 사랑과 돈의 문제를 둘러싼 자신들의 연애관을 피력하고 있다. 한규는 사랑을 돈으로 구매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기생이나 갈보가 안인 다음에야 돈에 눈이 어두워서 사랑을 하고 몸을 내던”지는 여성을 비난하면서 기생이나 갈보와 동급으로 전락시킨다. 이에 더해 그는 사랑의 요건으로 여성의 순결성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경애는 내심 “돈하고 사랑이 한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정면에서 그의

70)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사상, 2001, 353쪽.

71) 오스카 와일드뿐 아니라 엘렌 케이와 입센을 근대적 연애의 모델로 상정하여 그들의 연애를 성립해가려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정연, 앞의 글, 54쪽.

주장을 반박하지 못한다. 이미 순결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서 《살로메》는 자신들을 비추어 보는 일종의 거울 역할과 상대방의 의중을 떠보는 일종의 심리테스트의 모형의 역할을 하고 있다.⁷²⁾ 그 결과 이들의 연애는 상호 충돌을 피할 수 없으며, 결국 덕순의 개입으로 파국에 이른다.⁷³⁾

이처럼 외국소설이 선행적 범주로 연애의 기준이 되는 데에는 작가 염상섭의 독서체험이 소설화되는 과정에 많은 부분 기인한다. 염상섭은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일본 유학을 다녀온 작가이다. 그가 유학할 당시 일본은 대정 교양주의, 즉 서구의 개인주의적 근대사상에 대담하게 기울어진 시기이다.⁷⁴⁾ 이 시기 일본 문단이 외국문학과의 교류를 활발히 했던 점은 식민지 유학생들에게 전공분야 외에 교양을 위한 독서에 심취할 기회를 제공했다. 염상섭 또한 풍부한 독서경험을 바탕으로 연애의 문법을 구축하였는데, 그것은 외국소설을 기준으로 한 모방적 연애의 형태를 띠고 있다.⁷⁵⁾ 이러한 모방적 연애는 당대 현실에서 차용하는 모델 소설 형태로 변주되어 드러나기도 한다. 《너희들은 무엇을 어딴느냐》는 실존인물인 일엽 김원주를 모델로 삼으면서도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의 연애를 모방하는 소설이다. 이 소설에 앞서 발표된 《해바라기》는

72) 김경수, 『행보의 독서체험과 초기소설의 구조』,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일조각, 1999, 31쪽.

73) 이들 외에도 외국소설을 읽은 경험은 명수와 마리아 사이에 연애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모델 역할을 한다. 마리아가 애인인 안석태를 두고 명수에게 마음이 옮겨가는 징표 역시 외국소설의 내용에 빗대어 배신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중에 드러난다. 그 소설의 내용이 애인을 버리고 폐병에 걸린 다른 남성을 선택한 여자의 이야기라는 점은 세 작중인물을 둘러싼 현실적인 관계의 변화를 예측하는 기능까지 겸하고 있다.

74)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출판부, 1987, 81쪽.

75) 염상섭의 연애담론은 연애에 대한 서구적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지식인만의 특권적인 소통으로 전도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것은 염상섭 소설이 당대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가 없었던 이유로 작용한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을 경유한 서구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의 연애 담론은 식민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실존인물 나혜석을 모델로 삼은 소설이며,⁷⁶⁾ 이후에 발표된 《珍珠는 주었스나》는 오스카 와일드의 《살로메》를 소설화한 작품이다.⁷⁷⁾ 이렇듯 1920년대 초반에 쓰여진 작가의 소설들은 외국소설이나 당대 신여성의 연애담을 기준으로 삼아 서사화하는 경향이 짙다. 이것은 서사화되는 과정이 농익지 못하고 서구의 ‘지식’ 자체를 관념적 형태로 거칠게 전달하는 초기 소설의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둘째, 이 소설에서 신여성⁷⁸⁾의 연애관은 앞선 두 소설과 달리 낭만주의적 사랑이나 이념과 배리되는 엘렌 케이의 연애론과 입센의 노라이즘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엘렌 케이나 노라”의 이름은 이 소설 뿐만 아니라 《해바라기》에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신여성의 연애관을 표상하고 그 연애의 근거로 작용한다. 엘렌 케이⁷⁹⁾와 입센⁸⁰⁾의 저작들

76) 김동인의 《김연실전》은 신여성 김명순을 모델로 한 소설인데, 여기에서 송안나의 행적은 《해바라기》의 내용과 일치한다. 《해바라기》는 작가가 앞서 발표한 단편 <신희기>를 재구성하여 확대한 작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77) 김경수, 『염상섭 소설과 연극』, 『현대소설연구』제31호, 2006, 80~85쪽 참조.

78) 이 소설의 여성 작중인물들은 당시 근대적 교육을 받은 신여성성을 표상한다는 측면에서 이하 신여성으로 명명하기로 하겠다.

79) 엘렌 케이의 연애론은 1920년 전후로 이중역으로 조선에 전해졌다. 그녀의 핵심적 논지는 ‘우생학적 연애진화론’이다. 인간의 진화와 함께 미래의 사랑은 성욕이 정화되면서 나타나는 윤리의 정신현상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인종의 개량이라는 목적 아래 연애, 결혼, 이혼 등의 문제를 다룬다. 연애는 인종의 개량에 유리한 조건, 즉 건강, 경제력, 교육을 갖춘 남녀가 연애의 감정을 느끼고 영혼과 육체의 합일의 경지를 주장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애를 기초로 한 결혼은 감정과 영혼, 욕망과 의무, 자기주장과 자기헌신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戀愛업는 結婚生活을 繼續하는 것은 (...) 一種의 罪惡이다”라고 주장하며 이혼 또한 인종의 개량에 불리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생식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정당화하였다. 엘렌 케이의 연애론은 근대적 개인의 인격적 독립, 정체성의 확립을 강조하는 근대적 시민사상의 이론적 기반으로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국민국가 형성에 이론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엘렌 케이의 연애론은 인종개량이나 국민국가 형성의 문제가 축소 혹은 결락된 채 소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유연애’와 ‘연애의 자유’의 개념이나 가치를 준별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는 영육일치의 연애관과 자유이혼론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

은 주지하다시피 여성해방사상 측면에서 1920년대 조선사회 여성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조선의 결혼제도와 이혼제도의 개혁을 주장할 때 특히 엘렌 케이의 자유연애론과 자유이혼론은 강력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연애관들이 소개되는 가운데 신여성들 사이에는 결혼의 전제로 연애를 이상화하는 풍조가 강해지고 신여성과 상대인 지식계층의 남성에게 연애가 긍정적인 가치로 간주되었다.

이 소설에서 특히 신여성들이 엘렌 케이의 연애관에 경도되는 것은 당대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그녀들이 처한 상황, 그러니까 연애 대상이 거의 기혼자라는 사실에 많은 부분 기인한다. 남성들은 종래 조선사회의 조혼 관습에 따라 결혼하고 나서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유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신여성이 기혼 남성과 연애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조선사회의 조혼 풍습과 부모에 의한 강제결혼이라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전적으로 배리되는 것이었다. 특히 이혼문제로 확대될 때, 조혼하여 근대교육으로부터 방치된 구 여성과 갈등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다. 덩옥의 경우, 서양화가인 한씨와 지난한 연애과정을 거쳐 결혼한다. 기혼자였던 한씨가 신문기사화될 만큼 시끌벅적한 이혼소송을 거쳐 본부인과 이혼하고 그녀

가섰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그녀의 연애론은 연애이상주의를 이끌어내는 이론적 기저로 수용되었다. 구인모, 『한일(韓日) 근대문학과 엘렌 케이』, 『여성문학연구』제12권, 2004, 69~94쪽 참조.

- 80) 헨릭 입센의 《인형의 집》은 1921년 1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매일신보』(白華·桂岡 합역)에 연재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용되었으며, 1922년 양백화가 번역한 《노라》와 이상수가 번역한 《人形의 家》가 각각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독자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받았다. 하지만 조선사회에 입센의 근대극은 《인형의 집》을 위시한 여성소설의 일부 문제극만 소개되었다. 특히 《인형의 집》은 현실 문제를 가정 내부의 남녀 문제, 특히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인격문제로 주제가 축소되어 이입된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확립하려고 하는 진보적인 여성을 일컫는 ‘노라이즘’이라는 신생어가 형성될 만큼 조선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안미영, 『한국 근대소설에서 헨릭 입센의 ‘인형의 집’ 수용』, 『비교문학』제30권, 2003, 109~131쪽 참조.

와 재혼했기 때문이다. 덕순의 집에 모인 남녀 작중인물들이 덕옥의 이름만 거론해도 이혼소송사건을 떠올릴 만큼 덕옥은 결혼 후에도 유쾌하지 않은 유명세를 치루고 있다. 이러한 기혼 남성과의 연애는 희숙이나 마리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확인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 소설에서 신여성들은 연애를 그 신성을 넘어서는 해방의 관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녀들에게 연애는 무조건적이고 당위적인 추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김덕순에게서 가장 잘 드러나 있다. 김덕순은 학업을 마치기 위해 응화의 도움을 받은 대신 그의 후실이 된다. 3·1운동 이후 그녀는 응화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탈각(脫殼)』이라는 잡지를 창간하였으나, “글짜나 쓰는 사람들하구” 교류를 하게 되면서 나이 많고 다리 불편한 응화를 홀대하기 시작한다. 결국 그녀는 잡지를 중단하고 일본 유학을 가는데, 근대적인 문물을 체험하고 배우려는 것은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다. 이미 그녀는 일본의 B여사의 사건, 그러니까 “일본사회에서 썬들든 녀류 문학자로 얼마쯤 유명하게 된 B라는 여자가 어찌한 신문 기사하고 연애관계가 생기어서 아이까지 들게 된 뒤에 남편의 집을 쫓어나온 사건”을 동조하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 그것은 “사랑 엮는 결혼은 강간(強姦)”이라는 엘렌 케이의 자유이혼론에 동조하는 것으로 그녀의 결혼생활이 파경에 이르렀음을 함축한다. 동시에 그녀가 새로운 자유연애를 갈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본에서 한규와의 연애 사건으로 구체화된다. 이렇듯 그녀는 엘렌 케이의 자유이혼론에 기대어 연애를 결혼생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의 관념이자 인격적 주체로서 그녀가 추구해야 할 당위적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연애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는 《해바라기》에서 최영희가 연애를 예술과 동일시하여 신성한 관념으로 무장하는 것에서 한 단계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 소설에서 신여성들은 연애를 욕망하는 동시에 순결 상실과 돈이라는 물질성에 쉽게 경도되고 있다. 신여성들은 연애의 자유뿐 아니

라 자유연애를 실천하는 인물이다. 그녀들은 영육일치의 연애관을 몸소 실현한 인물들이었다. 경애는 한규와 연애하기 이전에 이미 순결을 상실한 상황이고, 마리아 역시 명수에게 연애감정의 진정성을 호소하면서도 기혼자인 안석태의 아이를 임신한다. 평탄하지 않은 결혼 과정을 두고 볼 때, 덕옥이나 희숙, 그리고 덕순도 순결 상실의 혐의가 짙다. 이렇듯 신여성들은 순결 상실과 무관하게 연애를 꿈꾸는 여성들이다. 그것은 엘렌 케이의 자유연애론을 추구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연애관은 식민지 조선사회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전통적인 유교적 세계관뿐 아니라 근대적인 낭만적 사랑의 형식이나 이념, 나아가 현모양처라는 여성의 교육 목표 등 어느 것에도 배리된다는 점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앞서 『동아일보』의 기사들에서 보았듯이, 당대 조선사회에서 신여성의 연애관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지배적이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더욱이 신여성들은 사랑보다 돈을 선택하거나 둘 다를 합일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마리아는 순결성을 상징하는 이름과 달리 기혼자인 안석태의 재력에 이끌려 임신까지 하고, 희숙은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명수를 감정적으로 희롱하려다 실업가 현장환과 혼인한다. 이처럼 신여성들은 연애를 절대적인 가치로 내세우면서도 이 해타산적인 이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신여성의 연애가 지닌 지표들, 즉 순결 상실과 이해타산성은 연애의 순수성에 위배되고 있다. 그것은 연애관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엘렌 케이의 자유연애론을 피상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엘렌 케이의 연애론은 인종의 개량에 목적을 둔 ‘우생학적 연애진화론’의 성격을 띤다. 즉 미래의 사랑은 성욕이 정화되면서 나타나는 윤리의 정신현상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건강, 경제력, 교육을 갖춘 남녀가 연애의 감정을 느끼고 영혼과 육체의 합일의 경지를 주장하며 헌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⁸¹⁾ 이러한 관점에 기대어 본다면, 신여성들은 연애의 요건들 중

81) 구인모, 앞의 글, 74쪽.

경제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연애에 접근하는 태도가 현실적이기 못하고 이중적이거나 이해타산적이다. 영육합일의 연애 방식 또한 그 목적과 전제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신여성들은 규준으로 삼은 자유연애론을 표피적으로 이해하고 실현하려 한 셈이다. 그것은 엘렌 케이의 자유연애론이 식민지 조선사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이기도 한데, 그 결과 신여성들의 연애는 조선사회의 윤리적 질서나 사회적 통념과 충돌하여 윤리적 타락의 지표로 부각되는 측면이 강했다.

넷째, 이 소설에서 남성 작중인물들은 신여성의 연애 문제를 진단하는 담론주체로 전면에 나서고 있다. 남성 작중인물들은 자신들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신여성들처럼 연애에 몰입하기보다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면모들은 신문기자 김중환과 유학생 명수의 대화부분이나 장홍진의 주장에서 잘 드러난다.

중환과 명수는 요리집과 자취방을 오가며 곧잘 조선의 연애 현실을 진단하는 인물이다. 중환은 조선의 연애 유행에 대해 “무지(無知)라는 돈으로 산 본능적 생식(本能的 生殖)”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한다. 춘향을 “열녀”로 간주할 만큼 신여성의 연애에 대해 비판적이다. 더욱이 비판의 화살은 조선인 전체에게 확대되는데, 조선 사람은 “불순(不純)”과 “무감각(無感覺)”을 “숙명적”으로 타고난 “련애 업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련애를 찾”고 있다며 비판적이고 자조적인 결론을 내린다. 이에 동조하고 있는 명수는 그 원인을 희망이 부재하는 식민지 상황에서 조선인들이 “영원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꿈”처럼 연애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그들은 조선민족에게는 연애를 할 만한 조건적 성숙이 부재하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본다.⁸²⁾ 그 과정에서 중환은 명수와 일본말로 대화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특히 명수는 조흔한 경험이 있음에

82) 이것은 홍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의 논지는 2장에서 살펴본 김원주의 논지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 불구하고 동경 유학시절 일본의 귀족 딸과의 연애를 순결한 첫사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진단 행위에 식민지 모국 일본과 일본 여성을 비교 우위로 삼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그들의 논리는, 식민지 모국 일본은 연애의 조건이 성숙한 우월한 민족이고 식민지 조선은 그것이 부재한 열등한 민족이라는 비관론적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근대적 지식인인 그들이 식민주의적 의식뿐 아니라 이를 내재화한 식민주의적 무의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준다. 지식인들 스스로가 일제의 식민정책에 동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하겠다. 따라서 남성 작중인물들의 이러한 결합은 당대 신여성의 연애론에 대한 진단들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장홍진은 그들이 진단한, 조선 민족에게 부재하는 연애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그에 따르면, 이상적 연애를 위해서는 자아의 발견, 절대성 혹은 교환불가능성, 도덕성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첫째, 자아의 발견이란 연애를 통해 각자의 인격을 수양하고 상대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결합에 의해 자아를 발견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둘째, 절대성 혹은 교환불가능성은 한 명의 연애 대상에 대해 절대적이고 전일한 연애를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연애의 도덕성은 연애가 “교양으로” “퇴폐적, 성적 타락을 구제”하는 “윤리적 의의를 동반”한다는 맥락에서 주장된다. 여기에는 “향락적 행복보다 심각한 인간고의 세례”를 느끼기 위해 “맹목의 감정에 복종하지 말고 명철한 이지의 성별에 힘을 빌”리라는 엄숙한 주문이 뒤따르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은 전지적 작가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강조된다. 전지적 작가는 “련애라는 심덕 현상(心的 現象)을 일으키는 원동력(原動力)이 생명체(生命體)의 데일 밋층에서 굿세계 움죽이는 성욕에 있다”고 전체 하면서도 성욕에만 편벽되면 남녀 관계가 추악하고 오래가지 못한다고 본다. 그러면서 “성욕의 충족만이 련애의 전제로 이는 친박한 남녀에게는 성욕을 충족시킬 기회가 업시 그 련애관계가 깨트러질 때에는 피차

의 인상(印象)이 아름답고 깊게 남을 수 있는 것”이라며, 여성의 순결이 연애 관계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렇듯 이상적인 연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애주체의 교양과 수양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여기에서 제시된 연애의 조건이 선형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여 연애의 본질을 규정한다고 할 때, 첫 번째 희생양이 된 대상은 신여성이었다. 신여성은 무지와 자각 없음으로 인해 부박한 연애 유행을 선도하며 연애를 대중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꼭지점에 놓인다. 이런 점에서 ‘너희들’, 신여성은 비판의 못매외에 ‘얻은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셈이다.

VI. 마무리

이상에서 『동아일보』가 공적 담론의 장으로 역할을 담당했던 1920년대 중반까지 발표된 장편 신문소설들, 즉 나도향의 《幻戲》, 이회철의 《泣血鳥》, 염상섭의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를 대상으로 연애담론의 특성을 고찰해 보았다. 신문소설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당시 『동아일보』에 활성화되었던 여성담론을 우선 살폈다. 여성교육담론은 현모양처의 여성관이 지배적이었던 반면 여성해방담론은 여성의 인격 자각과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온건한 입장과 전통적인 결혼제도와 관습에 배리되는 자유연애와 연애결혼을 요구하는 급진적 입장이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담론들이 식민지성의 자장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복잡한 국면들을 껴안고 있었는데, 신문소설의 연애담론도 이와 유사한 성격 띠고 있었다. 이를 간추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애의 주체이자 대상은 근대적 지식인이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근대적 지식이 연애의 조건이면서 근대적 교양을 향유할 자격을 의미하였다. 근대적 지식인이 새로운 권력층으로 대두되었던 당대 현실과도 무

관하지 않았다. 《幻戲》에서는 남녀 작중인물들 모두 연애에 대한 욕망이나 충동이 우선하고 있었다. 그들은 연애 대상을 이상화된 이념형이나 극단적인 환영태로 상정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근대적 문명에 대한 선망을 절대화한 결과였다. 이러한 점은 그들의 연애가 실제 현실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泣血鳥》에서 남녀 작중인물들은 일본 유학생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연애의 주체에 앞서 이들은 당시 식민지 유학생들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는데, 특히 남성 주인공이 부박한 유행을 따라 지식을 피상적으로 수용하고 소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무엇을 어딴느냐》에서는 작중인물들의 연애가 외국의 문학작품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외국작품에 대한 독서경험이 연애와 같은 삶의 활동을 규율하는 원리가 되고 있었다. 이것은 작가 염상섭의 독서체험이 소설화되는 과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세 소설 모두 연애 주체들이 근대적 지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식민지성을 꺼안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었다.

둘째, 세 소설 모두 서구의 근대적인 연애의 모델을 기준으로 삼아 이상화시키고 있었다. 《幻戲》는 서구의 낭만적 사랑을 모델로 삼고 있었는데, 작중인물들의 연애는 자신이 선망한 낭만적 사랑의 이념형을 현실에 부합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었다. 《泣血鳥》에서는 성차에 따라 다르게 드러났다. 여성 작중인물은 박애주의적 기독교 세계관에 근간하여 낭만적 사랑을 신성으로 도약시켜 욕망하고 있었다면, 남성 작중인물들은 낭만적 사랑의 형식에 성적 욕망을 결합시키려 하였다. 작중인물들의 갈등은 여기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결과 여성의 현실적인 실패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무엇을 어딴느냐》에서는 엘렌 케이의 자유연애론과 입센의 노라이즘이 여성 작중인물들, 즉 신여성들의 연애관의 기준이 되고 있었다. 특히 엘렌 케이의 자유연애론은 신여성들의 연애 대상이 거의 기혼자라는 사실에 많은 부분 기인하고 있었다. 신여성

들은 연애를 신성을 넘어서는 해방의 관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당대 사회적 상황과 곱지 않은 시선에 응전하기 위한 의도로 보였다.

셋째, 연애 주체인 여성이 갖추어야 할 제일 요건으로 육체적 순결이 강조되고 있었다. 순결 상실은 그 자체로 타락한 연애의 표지가 되며, 때문에 연애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幻戲》에서 여성 작중인물이 시도한 연애의 현실적 실패는 육체적 순결을 상실한 여성이라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죽음이라는 낭만적 승화의 형식을 통해서만이 낭만적 사랑에 대한 환상성을 지속시킬 수 있었다. 《泣血鳥》에서 순결을 상실한 여성 작중인물은 어김없이 연애에 실패하였으며, 그후 첩이나 현지처로 급격하게 타락하는 이유가 되었다. 《너희들은 무엇을 어뎠느냐》에서 신여성들은 순결 상실과 무관하게 새로운 연애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 결과 연애를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후자의 경우 신여성들이 첩이나 후실이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여성의 순결은 당대 여성들의 삶의 향방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여성교육의 목표를 현모양처에 두었던 당대 현실을 맥락화한 결과라 하겠다.

넷째, 연애 관계에서 ‘돈’이라는 물질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1910년대 《장한몽》에서 드러났던 ‘사랑이나 돈이냐’의 논리가 변주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幻戲》에서 물질성은 여성 작중인물이 연인 대신 다른 남성 작중인물을 선택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었다. 《泣血鳥》에서는 고학생이었던 작중인물들이 유학생살이나 연애가 타인의 물적 지원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기생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렇기에 기생처를 상실했을 때 작중인물들은 급격하게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 작중인물의 죽음은 당대 여성 고학생들의 문제를 문맥화하면서 윤리적 타락에 대한 서사적 속죄 형식을 띠고 있었다. 《너희들은 무엇을 어뎠느냐》에서 신여성들은 순결 상실과 더불어 물질성에 쉽게 경도되고 있었다. 그것은 연애의 순수성에 위

배된다는 점에서 비판적 담론을 형성시키고 있었다.

다섯째, 《泣血조》를 제외한 두 소설에서 비판적 담론주체는 작가의 시선을 견지한 남성 작중인물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幻戲》에서는 이 영철의 목소리를 빌어 연애 문제를 둘러싼 친구세대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근대적인 문명의 승리가 정당화되고 있었다. 그것은 근대적인 연애와 연애결혼이 전통적인 결혼제도에 대한 승리에 다른 아니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에서는 남성 작중인물들이 신여성의 연애관을 비판적으로 진단하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조선민족에게는 연애를 할 만한 조건적 성숙이 부재하다고 진단하고 있었는데 그 비교우위적 대상으로 일본과 일본 여성을 들고 있었다. 두 소설의 담론주체들은 근대적 사유체계를 작동시키고 있었지만, 그 결과 일제의 식민성에 노출되고 나아가 동화될 위험이 컸다.

이상의 논의를 두고 볼 때, 1920년대 전반기 소설의 연애 담론은 당시 조선사회를 지배했던 연애의 유행이 일제를 거쳐 들어온 서구의 근대적 연애나 연애관에 경도되어 있었다. 그것은 전통적인 유교적 세계관 뿐 아니라 식민지 여성의 교육정책이나 민족주의 진영의 교육목표였던 현모양처 여성관과 맞물려 복잡한 갈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일본의 식민성에 노출될 위험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그럼에도 당시 연애 과정에서 주요한 시비거리는 여성의 순결문제나 전도된 물질성의 문제였다. 그것을 비판하는 담론주체가 남성이라는 점은 세 소설이 남성 작가라는 점에서도 기인하겠지만, 연애 문제에서도 남성 중심주의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1920년대, 동아일보, 근대소설, 연애, 연애담론, 여성담론, 나도향, 이희철, 염상섭, 《幻戲》, 《泣血조》,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 현모양처, 낭만적 사랑, 엘렌 케이, 노라리즘, 육체적 순결, 물질성, 담론주체, 식민성, 식민주의

참고문헌

1. 일차 자료

- 권영민·김우창·유종호·이재선 엮음, 『염상섭전집』제1권, 민음사, 1987, 179~387쪽.
- 권영민·김우창·유종호·이재선 엮음, 『염상섭전집』제12권, 민음사, 1987, 1~255쪽.
- 이광수, 『이광수전집』제16권, 삼중당, 1962, 1~548쪽.
- 이광수, 『이광수전집』제17권, 삼중당, 1962, 1~568쪽.
- 이희철, <泣血鳥>, 『동아일보』, 1923.6.2~10.28.
- 주종연·김상태·유남옥 엮음, 『나도향 전집』하권, 집문당, 1988, 102~379쪽.
- 『동아일보』, 1920.4.1~1924.12.31.

2. 이차 자료

-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1920년대 초반의 문화와 유행』, 현실문화연구, 2003, 1~288쪽.
- 권영민 엮음, 『염상섭문학연구』, 민음사, 1987, 1~499쪽.
- 김경수,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일조각, 1999, 1~289쪽.
-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20세기 전반기 신여성과 근대성』, 푸른역사, 2004, 1~398쪽.
- 김동식, 『연애와 근대성』, 『민족문화사연구』제18호, 2001.299~326쪽.
- 김미영, 『1920년대 여성담론 형성에 관한 연구-‘신여성’의 주체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3, 1~268쪽.
- 김미지, 『1920-3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연애’의 의미 연구』, 2001,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77쪽.

-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1~945쪽.
- 김을한, 『실록 동경유학생』, 탐구당, 1986, 1~292쪽.
- 김종균 엮음, 『염상섭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1~682쪽.
- 김지영, 「‘연애’의 형성과 초기 근대소설」, 『현대소설연구』제27호, 51~82쪽.
- 김지혜, 「염상섭 소설의 여성인물 연구-1920-30년대 중·장편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2, 1~94쪽.
- 노지승, 「한국 근대소설의 여성표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1~189쪽.
- 다비드 르 브르통, 홍성민 옮김, 『근대성과 육체의 정치학』, 동문선, 2003, 1~318쪽.
- 류진희, 「한국 근대의 입센 수용 양상과 의미-1920~30년대 ‘인형의 집’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4, 1~199쪽.
- 문옥표 외, 『신여성』, 청년사, 2003, 1~325쪽.
- 미셸 푸코, 이규현 옮김, 『성의 역사』, 나남, 1995.
-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4, 1~433쪽.
- 박형지·설혜심, 『제국주의와 남성성』, 아카넷, 2004, 1~340쪽.
- 삐에르 부르디외, 김용숙·주경미 옮김, 『남성지배』, 1998, 1~205쪽.
- 삐에르 부르디외, 정일준 옮김,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1995, 1~319쪽.
- 서영채, 『사랑의 문법:이광수, 염상섭, 이상』, 민음사, 2004, 1~392쪽.
- 신수정,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여성의 재현양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3, 1~132쪽.
- 안미영, 「1920년대 불량 여학생의 출현 배경 고찰-염상섭의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18집, 2003.3, 293~317쪽.
-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옮김,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 친밀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1996, 1~320쪽.
-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 『신여성-매체론 본 근대여성 풍속사』, 한겨레신문사, 2005, 1~363쪽.
- 윤춘병, 『한국기독교 신문·잡지백년사 1885~1945』, 대학기독교출판사, 1984, 1~299쪽.
- 이보영, 『난세의 문학-염상섭론』, 예지각, 1991, 1~541쪽.
- 이성규, 『목적론과 다윈의 진화론』,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3, 1~152쪽.
- 이소연, 『일제강점기 여성잡지연구-1920-3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2, 1~75쪽.
- 임정연, 『1920년대 연애담론 연구-지식인의 식민성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6, 1~206쪽.
- 제일한국유학생연합회, 『일본유학100년사』, 제일한국유학생연합회, 1988, 1~380쪽.
- 제인 빌링허스트, 석기용 옮김, 『요부, 그 이미지의 역사』, 이마고, 2005, 1~299쪽.
- 차혜영, 『소설 개념 형성과 식민지 근대 부르주아의 정치학』, 『민족문화사연구』 28, 민족문화사연구소, 2005.8, 10~40쪽.
-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푸른역사, 2003, 1~563쪽.
- 최 준, 『신보판 한국신문사』, 일조각, 1990, 1~457쪽.
- 최영석, 『근대 주체구성과 연애서사-계몽성과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2, 1~119쪽.
-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나무, 2000, 1~398쪽.
- 파비엔 카스타-로자, 박규현 옮김, 『연애, 그 유희과 욕망의 사회사』, 수수꽃다리, 2003, 1~351쪽.
- 프란츠 파농, 이석호 옮김, 『검은 피부 하얀 가면:포스트콜로니얼리즘 시

대의 책읽기』, 인간사랑, 1998, 1~293쪽.

한원영, 『한국근대 신문연재소설연구』, 이회, 1996, 1~580쪽.

허병식, 「식민지 청년과 교양의 구조-『무정』과 식민지적 무의식」, 『한국어문학연구회』, 2003.8, 378~397쪽.

<Abstract>

Korean Modern Novels and Discourse on Love
- Focusing on Serial Stories Published in Dong-A Ilbo
in the 1920s

Choi, Mi-Jin · Yim, Ju-Tak

This paper aims at stud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course on love in the serial novels published in newspapers, including Na Do-hyang's *The Drama of Illusion*, Lee Hui-cheol's *Eup-hyul-jo* and Yeom Sang-seop's *What Did You Get?*, in the mid-1920s, when the Dong-A Ilbo served as a venue for a public discourse. Taking a closer look at the discourse on women prevalent in the Dong-A Ilbo at the time revealed that the discourse on women's education and the discourse on women's liberation had been undergoing a series of conflicts. The discourse on love in the serial stories published in newspapers showed similar characteristics as well.

First of all, one thing the three novels have in common was that both the subject and the object of love were modern intellectuals. Modern knowledge meant conditions for love and qualifications to enjoy a modern culture. This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reality of the time when the modern intellectuals emerged as a new group in power. It was problematic, however, that the subjects of love in the three novels embraced the internal coloniality in the process of accepting the modern knowledge.

Second, the three novels considered the modern love of the West to

be a standard and idealized the western model. Here lies the conflicts between the western-style romantic love, described as a standard, and Ellen Key's free love and Henrik Ibsen's Noratism.

Third, it was virginity that was emphasized as a prerequisite for the subject of love, women. The loss of virginity in itself represented a fallen love, so those women were excluded from the objects of love. The novels took women's moral degradation for granted, based on the sole and absolute criteria of virginity. This might be a result of putting the reality of the time in context, when the goal of education for women was to nurture a 'wise mother and good wife.'

Fourth, money-centric materialism served as a major variant in a love relationship. Along with the loss of women's virginity, materialism was facing a critical discourse, because it ran counter to the innocence of love.

Fifth, the subjects of discourse in three of the two novels, except for *Eup-hyul-jo*, were male characters representing the viewpoints of authors. This might be because of the fact that it was men who wrote those three novels, but also because the male-centered attitude had a big influence on a love relationship. The novels had a modern thinking system of the 'modernity/traditions or Japan/Joseon' in action, which was used as a logic to justify a modern love and a love marriage. They also had risks, however, of being exposed to or assimilated into the coloniality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that Japan was described to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Key Words : in the 1920s, Dong-A Ilbo, modern novels, love, discourse on love, discourse on women, Na Do-

hyang, Lee Hui-cheol, Yeom Sang-seop, *The Drama of Illusion*, *Eup-hyul-jo*, *What Did You Get?*, 'a wise mother and good wife', free love, romantic love, Ellen Key, Noratism, physical virginity, materialism, subject of discourse, coloniality, colonialism